

대한전선·LS전선, 동남아 해저·초고압 케이블 수주 ‘질주’

AI 확산에 전력망 수요 급증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가속
동남아 전진기지 투자 본격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패권 도전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국내 케이블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늘리고 기술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영향력을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선업계는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이는 동남아의 전력·통신 등 케이블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와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집중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의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6기가와트(GW)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6%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전력 수요도 연평균 10~12%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화 정책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대한전선과 동나이성 관계자가 투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한전선

I)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잠재력을 배경으로 국내 케이블 기업들은 몰들어 동남아 시장에서 역대급 수주전과 과감한 현지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한전선은 자회사

대한비나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해 베트남 동나이성 당국과 지난주 협의를 마쳤다. 투자 규모는 약 750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전력청과 400킬로볼트(kV) 초고압 전력망 공급·설치 계약(약 1100억 원)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국가 간 전력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400kV급 지중 전력망을 풀 단기 방식(설계·시공·인도 일괄 수행)으로 구축한다.

대한전선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마 해상풍력 해저케이블(1816억 원), 싱가포르 400kV 전력망(1100억 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2200억 원) 등 총 5100억 원 규모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LS전선은 대만 사업을 잇따라 성사시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만 해상풍력 ‘포모사(Formosa) 4’ 프로젝트에서 약 160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9년 대만 첫 계약 이후 상용화 1단계 모든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연속 수주를 이어갔다.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은 지난 4월 대만에서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확보하

며 국내 해저 시공사 최초 해외 진출 기록도 세웠다.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지난달 베트남 페트로베트남과 해저케이블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푸미항에 해저케이블 공장과 전용 부두 건설을 검토 중이며, 연내 JV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 5월 필리핀 최대 데이터센터 ‘STT 페어뷰 캠퍼스’에 중·저압 케이블을 공급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대규모 리전(데이터센터 집합)에 초고압 케이블을 납품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저·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세계 첫 HBM4 양산… 단가 30% 이상 상승

삼성·마이크론 후발 추격전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대기
고단가 메모리 수용 불가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선점에 한발 다가섰다. 공급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층은 가격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4의 내부 인증과 고객사 평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현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물량·단가 협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BM4는 HBM3E 대비 30~40% 이상 비쌀 것으로 전망되

며, 일부에서는 단품 가격이 5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연내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단독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BM4의 가격 인상폭이 큰 이유는 적층 수 확대와 대역폭 개선 등 기술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12단 적층에서 최대 16단으로 늘어나면서 열·수율 관리가 까다로워졌고, I/O 속도가 10Gbps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신호 무결성 확보가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초기 양산 시 수율이 낮은 것도 단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 프리미엄을 불일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

이다.

엔비디아가 최근 “1억 달러 투자로 50억 달러 매출을 거둘 수 있다”고 밝힌 점도 HBM4 고단가를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AI 인프라의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체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후속인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HBM4의 가격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공급사 확대와 수율 안정화가 본격화되는 2026년 이후에는 단가 인상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HBM4를 기점으로 메모리사 간 가격 협상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전자·마이크론의 후발 양산 진입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HBM4 대응 4세대 6세대 D램(1c) 생산라인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평택 P4를 중심으로 1c D램 설비 전환 투자를 마무리하고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2025 미래포럼’을 열고 경영진과 국내외 석학들이 글로벌 AI 시장 트렌드와 반도체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노정 사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SK하이닉스만의 딥 시퀀스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파나소닉코리아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바이탈리프트 RF EX.

파나소닉

피부보습·탄력 효과 강화 뷰티 디바이스 3종 선보

파나소닉이 EMS(전기 근육 자극), 고주파(RF), 온열 등 전문 에스테틱 기술을 집약한 뷰티 디바이스 3종 신제품을 선보였다.

파나소닉코리아는 14일 1962년 첫 페이스 리프트 디바이스 출시 이후 6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 제품은 ▲EMS 팔사 디바이스 ‘바이탈리프트 카사(EH-SP86)’ ▲고주파안티에이징 디바이스 ‘바이탈리프트 RF EX(EH-SR86)’ ▲올인원 이온 부스터 ‘이온 부스트 멀티 EX(EH-SS85)’다.

‘바이탈리프트 카사’는 EMS를 적용한 팔사형 디바이스로, 얼굴 탄력 개선과 붓기 완화, 전신 관리에 적합하다. ‘소프트 엑서사이즈 EMS’(100Hz 연속 자극)과 ‘듀얼 다이내믹 EMS 믹스’(수축·이완 반복) 2가지 EMS를 탑재했으며, ▲WEMS 리프트 ▲퀵 ▲웜 트리트먼트 3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바이탈리프트 RF EX’는 4MHz 고출력 RF에 EMS, 레드 LED, 이온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RF X EMS 리프트 ▲RF 펌프 등 5가지 모드로 피부 탄력·관체·보습 관리가 가능하다.

/정희준 기자

LG, NFL 구장 디스플레이로 美 팬심 공략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2년 파트너십
65m 전광판·메쉬 LED 외벽 설치

LG전자가 미국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프로풋볼리그(NFL)를 통해 소비자 현지 소비자층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NFL의 전통 강호로 꼽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2년간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홈구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LG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레이븐스 홈구장인 M&T 뱅크 스타디움의 개·보수를 포함해 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한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내년 시즌까지 M&T 뱅크 스타디움에 총 1115㎡ 규모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관객 입장 게이트에 약 65m 길이로 조성되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스타디

움의 새로운 상징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스타디움 내부 복도 등 관람객의 이동 동선 곳곳에 100대 이상의 LG TV가 설치된다.

시즌 종료 후에는 스타디움 외부 개·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약 215㎡ 규모의 LED 디스플레이를 외벽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되는 LED 디스플레이는 고층이나 곡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와 유연성이 특징인 메쉬 LED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LG전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팬들을 대상으로 월간 ‘가장 신뢰받는 선수’를 뽑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LG전자는 경기의 생생함을 더하는 혁신 디스플레이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야구와 축구, 미식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팬들에게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한화로보틱스·위아공작기계

EMO2025 전시회서 첫 공개

한화로보틱스와 위아공작기계가 스마트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동로봇을 활용한 공장기계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지난 9월 11일 MOU를 체결하고 공장기계와 협동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조 경쟁력 강화와 자동화 솔루션 고도화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위아공작기계는 과거 현대차그룹 생산라인 자동화 구성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역량을 구축해 왔다. 여기에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협동로봇(Cobot) 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9월 22일 독일 하노버에



위아공작기계 주재진 대표(왼쪽)와 한화로보틱스 정병찬 대표가 11일 ‘협동로봇을 활용한 공장기계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서 열리는 EMO2025 전시회를 통해 공동 개발한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 2종을 세계 시장에 첫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머신텐딩 분야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력은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주도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